

동북아 표준협력지도 그린다

- 제4회 동북아 표준협력회의, 제주에서 개최-

한·중·일 3국의 표준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 4회 동북아 표준협력회의가 11월 24일부터 이틀간 제주 사인빌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02년 동북아 3국의 긴밀한 표준협력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서울(2002년)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제2회 북경회의(2003년)와 제3회 동경회의(2004년)를 거쳐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11월 24일 회의의 최대 이슈는 동북아 표준협력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 한국이 제안한 한·중·일 표준협력지도 구축사업이었고, 표준협력지도는 3국의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간 차이점을 분석하여 동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는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으로, 한·중·일 3국간 표준협력을 위한 구체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한편, 그 자체만으로도 한·중·일에서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는 첫날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중·일 표준협회의 공동작업을 통해 내년 회의에서 승인될 전망되고, 그 외 첫날 회의에서는 전기강관의 철손에 대한 시험측정방법, 피뢰침, 고령자·장애인배려표준 등 세부 분야별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으며, 둘째날에는 표준협력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3국간의 논의 결과인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지난 3년 동안 한·중·일의 표준정책 담당기관과 민간 표준화기관은 3국의 표준정책 및 국제표준화활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3국이 제안한 세부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간의 활동을 통해 표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력참여기관은 한국의 산업자원부 및 표준협회,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규격협회, 중국의 표준화관리국(SAC) 및 표준화협회이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3국에 공히 중요한 협력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전망된다.

제4회 동북아 표준협력회의 개최 계획

1. 목적

- 한·중·일 표준협력을 통해 구미중심의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3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북아권의 교역원 활화
 - 한중일 3국이 세계 GDP의 20.9%, 세계 무역의 15.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ISO TC/SC의 의장 및 간사 수입율은 7% 수준에 불과
- 동북아 표준협력회의의 3국 순환개최 및 협력과제 추진을 통한 동북아 표준공조체제 구축

2. S-Dialogue 추진경과

- '02.11 : 제1회 동북아 표준협력회의(서울) 개최를 통해 회의의 정례·순환 개최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 합의
- '03. 3 :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로 6개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3억원)
- '03.10 : 제2회 동북아 표준협력회의 개최(북경)
- '04. 3 :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2차 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4억원)
- '04.12 : 제3회 동북아 표준협력 회의 개최(동경)

3. 논의 내용

- 3국 정부발표
 - 한국 : 동북아 표준협력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 동북아 표준협력의 필요성과 '02년 이후 동북아 표준협력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은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일부 협력과제별로 성과가 나타나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협력안건 도출이 미미하고, "동북아 표준협력지도" 구축을 통해 협력의 우선순위를 발굴하고 3국의 공동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과제 진행한다.

중국 및 일본 : 표준협력 강화방안 및 각국의 표준화정책 방향은 중국은 한·중·일 무역과 표준협력 발전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자국의 표준정책을 소개하고, 일본도 자국의 표준화활동 현황과 주요 표준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동북아 표준협력지도 구축

- 동북아 표준협력을 통한 한·중·일 3국간 표준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표준협력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 3국이 현재 보유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표준협력의 우선순위 도출
- 1단계 : 한·중·일 3국의 표준 및 기술기준 D/B 작성
- 2단계 : 한·중·일 3국 표준간 주요 차이점 정리
- 3단계 : 표준협력 우선순위 설정
- 4단계 : 우선순위에 따른 방안 제시 및 협력활동 추진

협력과제 성과보고 및 향후계획 발표

ISO표준용어 한·중·일 공동용어 DB 및 ISO 용어규격에 대한 한·중·일 대응용어 DB를 구축하고 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전문가회의 및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ISO 규격에 포함된 약 40,000개의 용어에 대한 한중일 언어 DB를 구축하고, 향후 DB화를 완성하여 구축된 DB를 3국의 산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ISO 서버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일 픽토그램 협력은, 한·중·일이 공공안내용 그림표지 등 픽토그램 표준과 관련된 전문가 교류 및 관련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중국은 2008년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동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 제안을,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안에 적극 협력하고 특히 수상안전과 관련된 픽토그램의 국제표준화활동(ISO/TC145/SC1) 협력을 제안 예정이다.

전기장판 철손측정 표준협력은 전기장판의 철손측정·해석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국제표준화활동(IEC/TC 68)에 공동 대응하고, 3국간 RRT(Round Robin Test, 상호간 비교시험)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3국의 철강 제품의 신뢰성평가 및 교정기준으로 활용 가능케 한다.

전기장판 철손 : 전력장치용 철심재료의 자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로 전력장치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 (전기장판의 최대 생산국은 일본, 최대 소비국은 중국)하지만, 향후 방향성 요소장판의 자구미세화 강종 등의 IEC 표준안 제안 및 TC 활동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 협력은 ISO 6780으로 채택된 T-11형 파렛트를 3국이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보급하기 위한 기구 창설 및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아시아파렛트시스템

연맹(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 APF)을 창설하고 파렛트 표준화 협력을 지속 추진되고, 향후 APF 활동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된 파렛트 사용을 확대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하며, 고령자·장애인 배려 표준화 협력은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일은 문화적, 체형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어 동양인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표준제정에 공동 대응이 가능하며, 국내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약 27조 원, 2010년에는 약 41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개발한 규격안을 KS표준으로 채택하였으며, 향후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3국이 협력하기로 결의하였고, IEC 피뢰설비 분야 표준화 협력은 피뢰설비 국제규격(IEC 61024)의 세부지침을 개발하여 3국의 국가표준으로 제안하고 관련 국제표준화활동(IEC/TC 81)에 공동대응한다.

3개국간의 협의체(Asia Lightning Protection Forum)를 구성·운영하고, 표준화 인재 육성 협력은 3국의 표준화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해 3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 인재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표준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공계 표준화 강좌 프로그램의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은 표준화 관련 e-Learning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고, 이공계 표준화 강좌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미래사회와 표준” 책자가 제공된다.

동북아 표준협력체 공식기구화 추진은 향후 동북아 표준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3국간 표준협회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 표준협력체의 구축 논의가 제안되고, 협력업무의 범위 및 방법, 대표자 및 연락창구, 절차, 협력과제 신규제안 방법 등에 관한 정관(ToR)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사항을 금년말까지 결정하고 2006년 6월까지 정관을 작성, 내년 회의에서 승인되도록 추진한다.

합의문 체결은 금년부터 합의사항에 대해 범주를 구분하여 합의문(Resolution)을 체결하고, 3국간 표준협력체제를 구축,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활동 협력, 표준화 기초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동북아 표준협력지도 개발, ISO 신규이슈에 대한 표준협력, 동북아 표준협력체의 상설기구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